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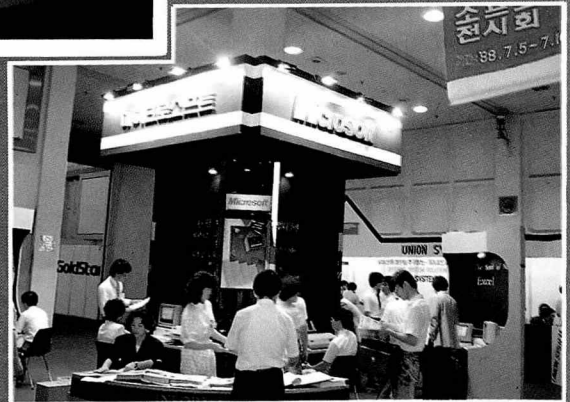


▲「SEK '88」은 88올림픽 전산시스템홍보관, 소프트웨어 공모전입선작 전시관, 일반소프트웨어 전시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올림픽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 시켰던 올림픽대회 전산홍보관.

「SEK '88」 개최

제2회 한국소프트웨어전시회「SEK '88」가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와 전자정보사 공동주최로 지난 7월 5일부터 6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와 개발촉진, 출품 업체간의 상호정보교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된 「SEK '88」에 출품된 전시품은 3,650점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시장에는 6일간 연인원 8만여명이 다녀가 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TV수상기 또는 컴퓨터 단말기와 정보은행을 연결, 정보를 화면으로 받아들 수 있는 뉴미디어 비디오텍스를 실험해 보는 모습. (KTA 전시장)

정보화사회의 주역, 전시장 나들이 활발

정보화사회에 대한 마인드 확산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방학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전시장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시장을 찾는 학생들은 이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해진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또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다.